

3천배·씨종자론...민생당 중진들 애꿎는 지지 호소

충선 D-5

민주당 거센 바람에 맞서
사즉생 각오 바닥 표심잡기
천정배 “이번이 마지막 도전”
박지원 “호남정치 위해 살려달라”
박주선, 배낭 메고 지역구 순회

4·15 총선이 불과 닷새 뒤로 다가온 가운데 거센 민주당 바람 속에서 민생당 소속 호남 중진들이 막판 애꿎는 지지 호소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호남 정치를 대표해왔던 지역 중진들은 당초 인물 및 경륜론을 토대로 민주당 후보들과 한 판 대결에 나섰으나 민주당 바람이 좀처럼 가시지 않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 기회를 준다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역 발전과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해 쏟아 붓겠다며 지역 민심에 다가서고 있다.

우선 개혁 정치의 상징이자 호남 최다선(6선)인 광주 서구을의 천정배 후보는 9일부터 ‘3000배 유세’에 돌입했다. 천 후보는 이날 서구 풍암동 대주사거리에서 3000배 유세에 들어가면서 “광주 등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싸늘이와 일당 독점이 현실화된다면 호남은 다시 ‘찬밥 신세’가 되고 모처럼 부상한 호남 대권주자는 결국 ‘팽’ 당할 것”이라며 “광주발전, 국가개혁, 호남 집권의 ‘1석 3조’를 위해 천정배를 지지



민생당 박지원 목포 국회의원 후보가 9일 목포시 비파아파트 앞에서 지나가는 유권자를 향해 눈물을 머금은 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천 후보는 이어 “이번이 저의 마지막 도전이자 헌신의 기회”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막고 호남대통령을 만들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심이자 4선 의원으로 호남 정치의 핵심으로 활동해왔던 목포의 박지원 후보는 ‘씨종자’론을 내세우며 바닥을 다지고 있다. 박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뒤를 잇는 4기 진보정권 창출과 호남 정치를 위해서라도 박지원을 ‘씨종자’로 살려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목포를 위해

눈물도 삼키고 비난과 수모도 견디며 일해 본 사람, 대통령을 배출한 목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진자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이낙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박지원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 후보는 9일 목포 비파아파트 사거리 유세에서 “존경했던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도, 사랑하던 아내도 이제 이세상에 없다. 남은 여성 목포를 위해 바치겠다”며 “호남 정치를 위해서라도 박지원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다가 감정이 북받쳐 뜨거운 눈물을 쏟기도 했다.



3천배 유세에 들어간 천정배 민생당 광주서구를 국회의원 후보가 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염주 사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철을 하며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동남 을 박주선 후보(4선)는 이번 주부터 아예 배낭을 둘러메고 지역구를 돌고 있다. 박 후보는 민주당 바람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며 하루 10km 이상 걸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 후보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제 코로나’ 쓰나미가 우러오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 장이 될 것이며 호남의 미래를 위한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역량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 후보는 “그동안 광주와 호남과

함께 한 것은 영광이자 나의 삶에 자긍심이 있었다”며 “인간 박주선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호남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겠다”고 민심에 다가서고 있다.

광산 갑의 김동철 후보(4선)도 ‘옥쇄’를 불사한다는 심정으로 지역구를 돌고 있다. 김 후보는 하루 30리 민심투어는 물론 300통의 전화, 1000명 유권자 만나기 운동 등을 병행하고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민주당 바람이 거세지만 결코 굴하지 않고 민심의 바다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것이 후보의 입장”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을 다하며 막판 역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의 동남 갑 장병완 후보(3선)는 ‘방파제론’을 내세우고 있다. 3선을 지내면서 ‘예산의 달인’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코로나 경제 한파에 대비해 검증된 경제 전문가를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장 후보는 9일 “코로나 경제 한파는 과거 IMF 사태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강력할 것”이라며 “광주와 남구 경제를 지킬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 사람을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끝을 보라”

산학연 및 병원 합동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 및 병원 합동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며 민간과 정부가 참여하는 상시협의 틀을 만들고 범정부적인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다시피 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개발 노력이나 비용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치료약이 상업

성이 없더라도 정부가 구매해 노력·비용을 100% 보상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배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행정지원도 아끼지 말고 돈도 아끼지 말라”며 “과거부나 복지부만의 힘으로 부족해왔던 기획재정부를 끌어들이더라도 끝을 보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우리가 범정부적인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굉장히 빠르게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부품의 자립화에 성공했다”며 “과감하고 통 크게 구상하라.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회의 후에는 현장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이 자리에서 류왕식 연구소장은 기존 의약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약물 재창출 연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서 단기간 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한 유일한 선택지”라고 소개했다. 류 소장은 특히 “2월 초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바이러스를 분양받은 다음 FDA 승인 약 1500종을 상대로 검토해 약효가 좋은 24개를 선정했다. 1500종 전체를 다 살펴본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약물 재창출 방식에서 우리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연구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자가격리자 ‘일시 해제’ 6시 이후 별도 투표 할 듯

참정권·감염 최소화 방안 고민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유권자에 대해 참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추가 감염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갖추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 중이다.

특히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위해 일시 격리해제 조치를 하고, 자가격리자들은 투표 마감 시간 직전 투표소에 도착해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감

염병이 국내 발생하고 그 기간 선거를 치르는 것은 첫 번째 사례”라며 “자가격리자에게도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고민 중인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전선거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선관위와 정부 내에서 실무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적절한 당국자가 구체적인 방침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와 정부 관계 부처들은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한 후 투표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일반 유권자들과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들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되기 전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받은 후 오후 6시 이후 발열 증상자들이 이용하는 임시기표소에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선거일 오후 4~5시부터 일부 일정 시간 자가격리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 해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가격리자들의 이동을 허용할 경우 이들의 외출 시간 동안 관리·통제하기 위한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정부 측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몰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